

UFO 신드롬에 편승한 출판상업주의

서점가에 두드러진 UFO관련서들... 터무니없는 조잡한 내용이 대부분

김동광

과학시대 대표

올해는 '로스웰 사건'이라 불리는 이른바 UFO(미확인비행물체) 추락사건이 일어난 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로스웰 사건은 UFO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거 중 하나이다. 1947년 미국의 뉴멕시코주 로스웰시(市) 근처의 사막에 UFO로 생각되는 비행물체가 추락했고, 그 직후 미당국이 UFO의 잔해를 수거해가고 외계인을 해부까지 했다는 것이 그 사건의 골자이다. 얼마 전에 개봉되어 상당한 화제를 모았고, 그 노골적인 미국중심주의적 시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던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로스웰 사건은 사실로 묘사된다. 작년에는 로스웰 사건으로 추락한 외계인의 해부장면을 찍은 비디오가 유포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필자는 UFO 전문가도 아니고, 평소에 UFO에 대해 남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 UFO가 과연 존재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는 힘들다. 따라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최근 출판가에서 나타나는 우려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기로 하였다. 국내에서 UFO 연구가로 손꼽히는 맹성렬씨는 UFO를 둘러싼 제반 문화적인 현상을 'UFO 신드롬'이라고 부르면서 그 본질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필자도 이 용어를 차용해서 이후 UFO를 둘러싼 출판과 서점가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상을 UFO 신드롬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신흥 종교로서의 UFO 신드롬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불과 수십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간 UFO 신드롬은 그 확산속도라는 측면에서 역사상 어떤 종교나 믿음에서도 그 유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최근 UFO 연구자들은 UFO의 발견사례에 대한 추적을 넘어서 접촉 경험이나 피랍사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만 3백만명 이상이 피랍이나 접촉을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숫자는 계속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맹성렬씨는 그의 책 《UFO 신드롬》에서 칼

요즘 들어 서점가에는 UFO를 비롯한 신비주의 경향의 책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이들 책 가운데는 UFO 문제에 폭넓게 접근하면서 본질을 파헤치려는 진지한 시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조잡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최근 서점가엔 UFO를 비롯한 신비주의 경향의 책들이 두드러져 우려를 자아낸다.



용, 폴 데이비스, 칼 세이건 등 석학들의 분석을 기초로 "UFO 현상이 얼마나 강력한 종교적 모티브들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구원'이다.

그런데 필자는 UFO 신드롬의 가장 강력한 종교적 모티브인 구원이 특히 '개인의 구원'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UFO, 또는 외계생물체와 관련된 소설이나 영화들은 거창하게 인류의 구원이라는 종교적 메시지를 내걸고 있지만, 대부분의 접촉-피랍 주장자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한결같이 개인적 구원이라는 강력한 소망이 내비치고 있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우주선이 공격을 하기 직전 빌딩 옥상에 몰려든 광적인 UFO 숭배자들은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울부짖는다. 이런 몸부림은 몇년 전 대단한 소동을 빚었던 '휴거' 신자들의 외침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나 인류의 구원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 또는 내 가족의 구원 내지는 탈출이 유일한 관심사라는 점이다.

얼마전 화성에 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확인되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을 때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 그리고 그 소식의 상품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던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뛰어난 순발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 후 미국 학계에서는 사실의 진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져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사실은 대중들에게 중요치 않다. 이렇듯 우리는 과학적 사실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기 보다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극적인 발표, 대중들의 심리상태에 따른 상품성 등이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그 현상의 본질이 외계생물체에 대한 진지한 과학적 탐구나 우리의 과학적 성과와 그 관계에 대한 논의와 거의 아무런 연관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칼 세이건을 비롯한 일부 선구적인 과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SETI(지구밖 외계생물체 탐사계획)는 최근 예산삭감에 시달리고 있어 UFO 신드롬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UFO 신드롬은 과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종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UFO 신드롬은 문화가 아닌 종교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 세대를 풍미했던 '사이버 펑크'와 같은 문화는 쉽게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못했다. 거기에는 하드 SF(충실한 과학적 토대를 가진 SF)와 같은 미국 특유의 문화적 토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동양의 일본만 하더라도 SF(과학소설)가 수십만의 고정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SF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UFO 신드롬의 본질이 과학이나 문화 그 어느편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FO 신드롬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그토록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본질이 문화가 아닌 종교이기 때문이다.

돈을 좇는 출판사들

우리는 UFO 신드롬의 확산이 2차대전 이후의 특징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UFO 신드롬은 2차대전 이후의 보편적인 참조들의 붕괴로 인한 포스트 모던적인 제반 경향의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극단에 위치한다. UFO를 둘러싼 여러 현상들이 그밖의 포스트 모던적 문화와 달리 큰 위험성을 갖는 것은 바로 그 종교성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엄청난 상품성의 뿌리도 같은 특성에 있다.

요즘 들어 서점가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UFO를 비롯한 신비주의 경향의 서적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점뿐 아니라 일부 백화점에서는 이른바 'UFO 특집'을 기획해 손님들을 끌어모으기까지 한다. UFO를 주제로 한 책들 중에는 앞에서 거론한 맹성렬씨의 《UFO 신드롬》처럼 UFO의 문제에 폭넓게 접근하면서 그 본질을 파헤치려는 진지한 시도도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머지않아 외계인들이 UFO를 타고 지구를 정복할 것이다"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조잡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신드롬(증후군)이란 어떤 현상이나 증상이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그 원인이 특수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구조에서 유래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현상의 뿌리가 되는 상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넓게 보아 우리 모두인 셈이다. 문제는 이런 증상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부 일간신문사의 출판부는 돈만 되면 무슨 책이든 못낼 것이 없다는 식의 노골적인 상업주의를 유감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